

# 교환·환불 불만 갤럭시7 소비자들 첫 손배소

##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 주요 내용

- 기간** : 2016년 10월13일(목)~12월31일(토)
- 장소** : 갤럭시노트7 기기를 최초 구매한 매장
- 방법** : - 다른 기기 교환, 환불(가액 취소) 중 선택  
- 구매 시 받은 기어핏2 등 사은품 반납하지 않아도 가능  
- 이동통신 3사 모두 고객에 안내 문자(SMS) 발송 예정.
- 통신사별 특징**
- SK텔레콤**
- 교환 시, 결제 취소를 통해 이전에 지불한 금액 모두 돌려받은 뒤 새로운 단말기를 다시 구입.
  - 교환 시, 공시지원금 위약금,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내지 않음
  - T삼성카드2 V2 카드 고객 2년간 혜택 그대로 제공
  - T갤럭시클럽 중단, 납부 이용료는 모두 환불 조치
  - 온라인몰(T월드 다이렉트) 구매 고객, 사이트 안내 통해 상담 및 택배 서비스 제공
- KT**
- 교환 시, 결제 취소를 통해 이전에 지불한 금액 모두 돌려받은 뒤 새로운 단말기를 다시 구입
  - 교환 시, 공시지원금 위약금,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내지 않음
  - 갤럭시노트7 전담 고객센터(☎1577-3670) 연상 운영
- LG유플러스**
- 교환 시 기기 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
  - R클럽 가입자 혜택 계속 제공
  - LG U+ 신한 라이드플러스 카드 고객 이달 20일까지 갤럭시S6/S6엣지 등 일부 기기로 교체 시 혜택 그대로 적용
- 연합뉴스** 자료/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 갤럭시 노트7 교환 및 환불이 시작된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한 이동통신 매장에서 고객이 교환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38명 1인당 30만원 청구 앞서 미국서 유사 소송도

### 대체 폰 없어 50만대 사용 중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이하 갤럭시7) 단종에 따른 교환·환불이 지난 13일 시작된 가운데 곳곳에서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갤럭시7' 보다 사양이 떨어지는 기존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그동안 번거로움을 겪었던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의 지원대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1일 갤럭시노트7을 단종하고 13일부터 최초 구매처에서 다른 기기로 교환을 시작했다. 하지만, 교환율이 첫 주말인 지난 15~16일 5% 미만에서 최근까지 10% 수준을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판매된 55만대 중 50만대 정도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스

마트폰 교환을 미루는 이유는 '갤럭시7'을 대체할 마땅한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7을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 등 다른 삼성폰으로 바꾸는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쿠폰과 7만원의 통신비 등 총 1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갤럭시S7 등 삼성폰은 출시된 지 6개월 이상 지난 구형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선뜻 교환에 나서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오는 21일 출시될 애플의 아이폰7과 아이폰7플러스, LG전자의 V20 역시 갤럭시노트7을 대신할 만한 제품이지만, 그동안 삼성폰만 쓰던 소비자에게 낯설다는 점에서 마땅치 않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지금 당장 교환하더라도, 갤럭시8 등 신제품이 출시 때 교환 혜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갤럭시7 구매자가 갤럭시S7 등을 이용하다 갤럭시8이 출시되면 남은 할부금 없이 교

체해주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갤럭시7 사용자 나모(50)씨는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기 위해 위약금까지 물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겪었던 불편에 비해 지원대책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삼지어 갤럭시7 단종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38명을 모집했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첫 제품 구매, 배터리 점검, 새 기기 교환, 다른 기종 교환 등으로 네 차례나 매장을 방문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매장을 방문하는 데 지출한 경비, 새 제품 교환에 든 시간,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 신뢰감 상실에 따른 정신적 충격 등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오는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24일 법원에 소장을 1차 접수하고 이후 2·3차로 추가 소송단을 모집키로 했다. 소송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미국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됐다. 미국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 주(州) 갤럭시7 이용자 3명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누저지 뉴어크 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인터넷 포털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7 교환·환불 방식에 불만을 표출하는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월말 마감 예정으로 1000명 서명을 목표로 했던 다음 아고라의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이게 정답입니까!'라는 정원 글에는 18일까지 1140명이 서명했으며, 이후에도 비슷한 정원 글 5건이 추가로 올라온 상태다. /박기용기자 pboxer@연합뉴스

## 주인 따라오는 인공지능 캐리어 개발

앞으로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는 대신 바퀴 하나로 캐리어가 자신을 따라오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트래블메이트 로보틱스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적외선 센서를 갖춘 로봇 여행용 가방을 개발해 크라우드펀딩에 나섰

다고 CNN머니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여행용 가방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파악해 소유주를 1~1.5m 간격을 두고 따라가며 적외선 센서와 AI 기술을 활용해 움직임을 최적화한다.

최대 속도는 시속 10.9km이며 한번 배터리를 충전하면 대기 상태로는 최대 100시간, 전자장 상태로는 4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다.

소유주로부터 4.6m 이상 멀어지면 알람이 울리며 스마트폰으로도 이 같은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제품은 시제품 단계이며 인디고고를 통해 상용화 비용을 모금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이트를 통해 399달러(약 45만원)를 내고 총 모금액이 10만 달러에 도달하면 내년 6월에 소형 제품을 받을 수 있으며 중형 가격은 495달러, 대형은 595달러다.

데이비드 니어 트래블메이트 로보틱스 최고경영자(CEO)는 "슈트케이스는 최근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고 혁신의 시기가 상당히 지체됐다"며 개발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 광주과학관서 드론 날려볼까

### 내달 12일 무료 드론 체험전 초·중·고등학생 경진대회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은 다음 달 12일 '드론, 하늘에 꿈을 날려다!'를 주제로 '2016 무한상상 페스티벌-드론 체험전·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2016 무한상상 페스티벌'은 최근 일상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드론에 관한 체험과 경진대회로 이뤄진다.

체험전에서는 드론 전시를 물론 드론 조종체험, 이벤트 경기 등 드론을 직접 만지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또 경진대회는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니 드론 레이싱 경기와 장애물 경기, 두 종류의 경기가 진행된다. 우승자에게는 각각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과 광주광역시교육감상이 수여되며 소정의 부상도 준비돼 있다.

이정화 광주과학관 과학교육연구실장은 "드론 관련 체험과 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미래 사회의 발전상을 상상해볼 수 있다"며 "과학적 사고력을 키워주고 청소년들에게 도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016 무한상상 페스티벌은 무료로 진행되며 과학관을 방문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체험전에 참가할 수 있다.

경진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광주과학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일본, 줄기세포 이용 '인공 쥐' 출산 성공



줄기세포로 만든 난자로 태어난 쥐. /연합뉴스

수정란을 이루는 두 생식세포 중 한 세포는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반쪽짜리 '인공 쥐'가 탄생했다.

일본 규슈대와 도쿄대 등 공동연구진은 18일 쥐의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실험실에서 난자를 만든 뒤 이를 정자와 수정시켜 정상적인 새끼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네이처'(Nature) 온라인판에 발표했다.

동물복제나 난임 연구 등에 쓰는 난자를 동물이나 사람에서 직접 채취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만들어 제공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연구진은 쥐의 배아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배양접시에 12.5일 된 쥐 배아에서 얻은 생식선세포를 섞어 함께 길렀다. 생식선세포는 줄기세포를 난자로 분화시키는 각종 물질을 공급한다. 이는 줄기세포가 난소 안에 들어있는 것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다. 3주가 지난 뒤 쥐의 배아세포는 난자와 유사하게 변했다.

연구진은 이 세포를 수일간 더 배양해 성숙시키고 이어 수컷 쥐의 정자와 수정

해 얻은 수정란을 암컷 쥐의 자궁에 착상시켰다. 이후 이 수정란에서는 배아가 정상적으로 발달했고, 암컷은 건강한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태어난 새끼도 다른 쥐와 교배해 정상적인 자손을 낳았다.

조승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이번에 체외에서 난자의 전체 주기를 구현했고, 이 난자로 후손까지 만들었다"며 "이전에도 줄기세포로 난자를 만들려는 연구는 계속 시도됐었지만, 이번이 특히 높은 수준의 결과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줄기세포로 수컷의 생식세포인 정자를 만드는 것은 이미 성공했다. 올해 2월 중국 난징의대와 중국과학원(CAS) 등 공동연구진은 쥐의 배아줄기세포로 정자를 만들어 국제학술지 '셀 스템 셀'(Cell Stem Cell)에 발표했다.

당시 연구진 역시 줄기세포로 만든 정자를 난자와 수정시켜 정상적인 새끼를 출산하도록 해 이 정자가 정상적인 생식 기능을 갖췄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연합뉴스

중개  
법인
한국토지경매
☎ 1522·3396  
대표

<p><b>수익형 빌딩</b></p> <p>감정가 24억3천만, 최저가 17억</p> <p>순천시 풍덕동 / 10층 54호 / 대지 106평 건물 690평</p>	<p><b>가스충전소</b></p> <p>감정가 12억7천만, 최저가 8억9천만</p> <p>화순 / 대지 977평 건물 108평 / 자동세차기 / 3기 6구</p>	<p><b>경매</b></p> <p>수익형 상가 빌딩</p> <p>감정가 21억3천만, 최저가 9억6천만</p> <p>동구 금남로 / 대지 172평 건물 249평 / 금남로 메인 도로점 / 3층</p>	<p><b>매매</b></p> <p>토지</p> <p>감정가 16억4천만, 최저가 16억4천만</p> <p>화순 화순읍 / 대지 932평 / 2종일반주거지역, 개발촉진지구 / 광덕지구 서측 / 8m도로점</p>
<p><b>오피스텔</b></p> <p>매매가 40억</p> <p>학동 / 8층 / 대지 133평 건물 577평</p>	<p><b>상가건물</b></p> <p>매매가 14억5천만</p> <p>월계동 / 3층 / 대지 198평 건물 450평</p>	<p><b>매매</b></p> <p>고급레스토랑</p> <p>감정가 9억 1천만, 최저가 5억1천만</p> <p>영암 삼호읍 / 2동 1층 / 임야 3166평 대지 721평 건물 130평 / 삼포교차로 북측</p>	<p><b>매매</b></p> <p>고급팬션 및 전원주택 부지</p> <p>감정가 7억 1천만, 최저가 5억</p> <p>해남 화원면 / 임야 4691평 /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 해안도로점 / 해변 전망</p>
		<p><b>매매</b></p> <p>전통한옥식 전원주택</p> <p>감정가 3억6천만, 최저가 2억</p> <p>보성 / 대지 185평 건물 80평 / 도로점 / 보성강 전망</p>	<p><b>매매</b></p> <p>상가</p> <p>매매가 17억</p> <p>서구 풍암동 / 대지 400평 건물 100평 / 윤리중학교 인근 / 주차시설 / 현 식당 성업중</p>
		<p><b>매매</b></p> <p>전통한식당 및 웨딩공연장</p> <p>매매가 16억</p> <p>담양 고서면 / 대지 1570평 건물 571평 / 제1종일반주거지역</p>	
		<p><b>매매</b></p> <p>전원주택</p> <p>매매가 13억</p> <p>담양 수북면 / 대지 1100평 건물 70평 / 조경 수목 식재</p>	<p><b>매매</b></p> <p>숙박시설 부지</p> <p>매매가 8억5천만</p> <p>광산구 우산동 / 대지 181평 / 일반상업지역</p>
		<p><b>매매</b></p> <p>임대 수익형 다세대 주택</p> <p>매매가 5억5천만</p> <p>북구 안암동 / 대지 110평 건물 125평 / 3층 건물 / 22평형 6가구 / 공실없음</p>	

부동산 매도 / 매수 상담환영      토지 / 상가 / 공장 / 창고 / 임야      010-6772-1114 김 주 성